

기후변화 역습... 흑산도에 동남아 진드기·조류 몰려온다

흰머리작박구리·참수리·고니·흰얼굴아기오리 등 출몰 검은지빠귀에서 국내 미기록종 진드기 2개체 나와 팬이갈매기 대부분서 노로바이러스 3개체 등 병원체

기후변화에 따라 신안군 흑산면에 서식하는 조류(새) 종류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동남아에서 온 국내 미기록종 진드기와 조류 등이 발견되면서 기후위기로 분포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우리나라 최대 철새이동 길목 흑산도의 조류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립공원 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24 국립공원 조류 조사-연구 보고서'의 흑산도 조류 모니터링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동남아 등지에 주로 서식하는 흰머리작박구리가 신안군 흑산면 삼리마을에서 발견됐다.

흰머리작박구리는 주로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서식하며 국내에서 발견된 것은 지난 2019년 인천 백령도 이후 두 번째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번식지가 발견된 바 없는 멸종위기야생생물 참수리와 천연기념물 고니, 한국에서 자생하지 않는 흰얼굴아기오리 등도 처음 확인됐다.

이주현 전남대 생물학과 박사연구원은 "최근 따뜻한 나라에서 사는 새들이 우리나라에서 자주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며 "만일 번식 개체까지 지속적으로 발견될 경우 기후 변화에 따라 조류 서식 환경이 변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국내에서 발견되지 않은 동남아 분포종 진드기가 관찰되면서 인수공통감염병(동물과 사람 간 전파 가능한 질병)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우리나라 철새의 80% 이상이 흑산도를 거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은지빠귀

연구원은 최근 '철새 진드기 매개 질병 모니터링'을 통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신안군 흑산면 배낭기미 습지에서 포획한 검은지빠귀에서 국내 미기록종 진드기(Haemaphysalis wellingtoni) 2마리를 발견했다. 이 진드기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미기록종 진드기가 발견된 배낭기미 습지는 저수지와 습지, 해안, 산림 등이 어우러진 곳으로 다양한 조류가 서식하고 있다. 연구원은 "기후변화 등의 요인에 따라 중국 남



미기록종 참진드기

부, 인도차이나반도, 동남아시아에 분포하는 진드기 종이 북쪽으로 확장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신규 진드기가 흑산도로 유입돼 정착하고 있다는 것은 기후 변화로 지역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중요한 지표로, 향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예찰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신규 유입된 조류가 중·장거리 이동 중 이동 경로와 서식지 사이에 국내 미기록종 진드기를 옮기면서 새로운 인수공통감염병의 병원균을 옮기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 연구원이 흑산도의 조류 1357마리, 태안 가의도의 조류 143마리를 대상으로 진드기 기생 여부를 확인한 결과 흑산도 41마리에게서 94마리의 진드기가 발견됐으며, 가의도 76마리에게서 진드기 143마리가 발견됐다. 수집된 진드기에서는 관절염과 기억-수면장애를 일으키는 라인병의 원인체인 보렐리아균이 흑산도에서 3건, 가의도에서 1건 검출됐다. 또한 신안 흑산도, 태안 난도·홍도 등에서 번식·유행하는 팬이갈매기 84마리를 조사한 결과 97.6%에 달하는 거의 모든 샘플에서 노로바이러스, 트리코모나스균, 웨스트나일열 바이러스 등 병원체가 확인됐다.

흑산도 비금면의 칠발도 바다제비 둥지에서는 일본에서만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새물렁진드기 44마리가 확인됐다. 새물렁진드기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주요 매개체다.

연구원은 "기후변화로 진드기의 개체수와 분포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질병의 확산율이 높아질 수 있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조류 이동에 따른 진드기 발생률에 관한 연구 및 이동 경로 파악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대인 기자 kdi@

조선대 '대학 활성화' A등급

조선대학교가 교육부의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2개년도 종합평가(2023~2024)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

조선대는 "광주시 대표 산업과 연계한 미래모빌리티, 첨단반도체, 첨단바이오 분야의 특성과 인재 양성을 위해 융합전공 신설·확대, 단계별 진로개발 지원, 맞춤형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을 시행해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CSU-RISE 협의체와 특성화 연구센터를 기반으로 한 지역맞춤형 RISE 연계 계획도 긍정 평가를 받았다.

조선대는 2023년 사업계획과 연차평가 'A등급'에 이어 이번 평가에서 모두 'A등급'을 받았다.

교육부는 올해 총사업비 2조원에 육박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RISE,라이즈) 사업 예산 배분 시 이번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은 교육부가 대학과 지자체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비수도권 사립대학이 특성화를 통해 지역과 연계,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



무농약 딸기 드세요 21일 광주시 북구 용강동 한 자산딸기 재배하우스에서 작목회원이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자산딸기를 수확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

"아이파크 판결은 안전불감증에 면죄부"

광주시·민노총 유감 표명

광주시는 21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형사재판 관련 입장문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시는 "해당 붕괴사고는 6명의 사망자와 1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는데도, 재판부는 사고의 책임자인 현대산업개발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재판부가 현대산업개발 대표에 대해 직접 주의의무가 없음을 판시한 것은 기업의 안전불감증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이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건설업계 전반에 안전 의식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엄정한 행정처분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민노총 광주본부(노조)도 이날 입장문에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1심 판결은 우리사회 안전불감증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 경영진 무죄 선고의 이유로 '공사장 시공과 안전관리에 직접적 주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고 피해자측과 합의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이전 사건으로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 광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아이파크 총괄 현장소장은 징역 4년, 관계자 3명과 하청업체 관계자 2명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시공사이자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당시 대표이사 2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대인 기자 kdi@

광주교육청 '늘봄학교' 대상·참여시간 확대

광주교육청은 21일 초등학교 누구나 따뜻한 돌봄과 질 높은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늘봄학교'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늘봄학교는 '늘봄은 온(溫)마을이 다(多) 함께 광주 늘봄'을 슬로건으로, 기존 초1 맞춤형 프로그램·초등 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 등을 늘봄학교로 통합해 운영한다.

늘봄학교는 교육 프로그램을 맞춤형·선택형 교

육(기존 방과후 학교)·선택형 돌봄(기존 초등돌봄교실)으로 운영한다.

지난해 2학기 늘봄학교가 전면 도입되면서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제공했던 맞춤형 프로그램은 올해부터 초 2학년까지 확대하고, 매일 2시간씩 성장 발달에 맞는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한다.

기존 방과후학교는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은 희망하는 초 1~6학년을 대상으로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며, 초 1학년에게는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연 72만원을 지원한다.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은 참여 시간대별 관리, 맞춤형·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연계 운영, 학교 밖 시설 활용 등을 통해 희망하는 초 1~2학년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별도 희망자가 있는 경우 아침늘봄과 저녁늘봄도 운영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

대우위니아 지난해 하반기에도 117억 임금 체불

대우위니아그룹이 지난해 하반기에도 117억 원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위상(비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우위니아는 지난해 하반기(7~12월) 117억 7100만원의 임금을 추가 체불했다.

대우위니아그룹 3개 계열사(위니아 전자, 위니아, 위니아 전자매뉴팩처링)는 광주를 비롯해 전국에 소재하고 있으며,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087명에게 체불한 임금은 1196억 6200만원에 달한다.

대우위니아는 2023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체불임금 변제 지원 계획안'을 제출하며 대우몽베르CC 골프장과 성남 대우위니아타워를 매각해 변제할 것을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고 있다.

골프장 매각 비용 3000억원 중 30억원만 변제했으며 성남 대우위니아타워는 매각 전이다.

지난해 7월 박영우 대우위니아 회장 일가가 소유한 성남 대우타워가 670억원에 팔렸지만 변제에 사용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대우위니아에게 체불임금 청산, 대지급금 변제 의지가 있거나 한 것인지 매우 우려스럽다. 정부는 임금 체불 사태를 종식할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인 기자 kdi@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릭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크!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크!
바로 바로 확인까지 크!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파할 손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상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히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등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택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등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애니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